

## 다름을 어울림으로...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확산)을 겪으면서 각국 경제성장은 멈추었고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현상은 심화됐다. 전 세계는 지금 사회구조 개선 방안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경기 둔화와 양극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민 배경을 지닌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사회통합의 길은 멀고 험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0만명. 여기에 결혼 이민자 자녀, 귀화자 등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이민 배경 인구는 어느덧 300만명을 훌쩍 넘는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이민 인구 관리 및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비용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 한 해 예산은 3000억원을 웃돈다. 이 엄청난 예산은 모두 국민 혈세로 충당되며, 사회적 부담은 높아져 간다. 여기저기서 ‘외국인만 챙긴다’는 불만소리가 터져나온다. 이 같은 불균형은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지속적인 공동체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이민을 확대하고 사회통합을 이룬 이민 선진국들 사정은 어떨까.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과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민



자들에게 정착·허가 수수료 등을 매겨 재원을 조성·운영하는 형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입국과 체류 과정에서 내는 수수료와 각종 과태료 등이 해외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 이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우리나라 현실에 알맞은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기금의 원천이 외국인·이주민이 지출한 비용으로 조성되고, 그 자신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한국 사회 정착에 대한 자존감을 스스로 높일 수 있다.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 사회통합 비용을 총담함으로써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국민적 반감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외국인

만 챙기느냐는 국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의 여지도 해결할 수 있지만, 미래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기에 시야 확장이 더없이 필요한 때이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현실이기에 정부 부처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금설치 시 법무부의 조직적 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용 등을 위한 이민 자지원 예산,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관련 예산,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등을 포괄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민 문제 개별현상에는 부처별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인구·종교·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 각 부처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칸막이를 낮추고 서로 협력하여 이민자 사회통합기금 설치에 물론이고 이민정책중앙컨트롤타워(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상생하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고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 다문화 학생 위한 교육지원 확대돼야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 농촌에 주로 유입된 외국인 신부 등 우리나라 총 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과 자녀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의 배우자 국적도 전 세계적으로 분포돼 있다. 이전에 주로 동남아 국가 출신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출신도 많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한국어를 잘 모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언어와 소통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데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하지 못해 학교생활은 물론 교우 관계에 부적응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2월 대구에서 열린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징검다리 학교가 상당히 관심을 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새학기 시작 전에 기초적인 생활습관에서부터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한국어 단어 등을 실질적으로 가르쳤다.

외국인 부모가 잘 알지 못해 가르쳐주기 힘든

학교문화, 학교생활,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부모님을 대신해 가르쳐 주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친 선배 학생들도 참여해 동생들을 가르쳐주며 우애를 나누는 보기 좋은 광경도 보였다. 일반 어린이들도 초등학교 입학 시 부적응과 부담을 느끼는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입학 전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상당히 부담이 덜어지고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위해 전국적으로 다문화 징검다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해 기준 이를 운영하는 지역은 58곳에 불과하고 아예 없는 지역도 5곳이 돼 지역 편차가 큰 실정이다.

초등입학 전 어린이 교육 못지않게 중도 입국해 중·고등학생이 된 학생들의 고충은 더욱 크다. 아예 한국어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면 적응 자체가 힘들다. 현재 전국적으로 한국어 학급이 있는 학교는 운영 기준의 1/10 수준인 400여 곳에 불과하다. 또한 학교마다 다문화 언어강사 채용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학생은 지난 2021년 이미 16만 명을 넘었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인력운영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 학교,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자



## 세상 읽기

안희정  
재미 저널리스트

10년 전, 다섯살 둘째 아이와 실내 스포츠센터에 갔을 때다. 인공 암벽에 여러 구기종목 경기장까지 마련된 어린이 놀이터였다. 입구에 도지볼(dodgeball) 경기장이 있었고 딸 또래 백인 사내아이가 공을 들고 친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서 있길래 아이를 들여보냈다. 부모 관람석으로 와서 앉으려는 찰나, 딸의 울음이 터졌다. 이유를 물으니 연신 숨을 들이켜며 한마디씩 뱉어냈다. “재가 공으로 막 때려! 자꾸 쫓아와서 공으로 때려!”

나는 ‘상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여섯살 아이다’를 상기하며 부드럽게 영어로 물었다. “네가 이 여자아이를 공으로 때렸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미안하다고 말해주지 않을래?” 그때 아이 엄마가 대답했다. “이츠 도지볼!”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이츠 도지볼’을 반복했다. 내 안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 웅웅거렸다. ‘나도 알아. 이츠 도지볼! 피구! 피구는 피구왕 통키지.’ 통키까지 연산작용이 일어났지만, 나의 영어는 운동장에서 공으로 상대를 때려 맞히던 그 피구를 그려내지 못했다. 나와 딸은 놀러 간 키즈카페에서 봉변당한 피해자 심정이 됐다. 지금은 웃는다. 그 사내아이 엄마도 황당했겠다, 생각하며.

우리가 세상 물정을 배우는 과정도 이렇게 않을까? 배신감에 억울해

하다 시간이 지나 그뻔 뭘 몰랐구나, 하는 이별의 5단계 같은 과정 말이다. 특히 학교라는 안전한 경기장으로 배우러 갔는데, 그곳의 페어플레이 정신이 피구 규칙이라는 지독한 난감함 말이다.

이태원에는 바라카 작은도서관이 있다. 아랍계 이주민이나 난민 가정 아이들을 지원하는 곳이다. 그곳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며 당혹감을 느낀 두가지 사실이 있다. 고려인, 다문화가정 이주 엄마들, 마을 활동가들에게서도 확인한 안타까움이다. 종일 일해도 살기 팍팍한 이주민 부모들은 그래도 아이는 학교에서 잘 배우겠지 생각하는데, 교사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다. 활동가들은 교사들이 ‘가난의 실상’을 이해하지도 접근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안정적인 직업에 도달한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생애를 보냈고, 그나마 열의를 갖고 나서는 교사는 공문과 서류로 평가받는 구조 속에서 제풀에 꺾인다고 했다. 아이들은 때때로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워 학교에 와야지’ 하는 말을 듣는다. 학교에 해당 언어 보조교사와 한국어 준비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교사와 학생 인원이 맞지 않아 역부족인 사례가 넘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들은 ‘한국 학교에서는 왜 진도를 건너뛰며 가르치죠?’라고 묻는다. 학원이 많지 않은 지방 읍 단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 배웠지?’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했다.

나를 더욱 당혹스럽게 한 건 ‘창의력 교육’이다. 성취감을 느껴볼 기회를 앗아가고 있었다. ‘영희가 사탕 5개를 사

서 동생에게 2개를 줬다면 몇개를 갖고 있을까?’ 한국어, 한글에 약한 아이는 풀 수 없다. ‘5-2=()’라면 3이라고 쓸 수 있는 아이도 체념하게 된다. 수학을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분리하여 채점한다면 적어도 하나의 시험에서 성취한 기억을 빌려 공부할 맛을 알아나가지 않을까?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다. 두자릿수 뺄셈을 배울 때 자원봉사 당번이 돼 교실을 찾았다. 보조교사까지 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유독 한 아이가 셈을 못했다. 일주일 뒤에 가니 그 학생 옆에 다른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교육청에서 나온 개인교사였다. 그 아이는 무난히 3학년에 올라갔다. 자페스펙트럼 학생 담당까지, 학생 15명인 그 반에는 교사 4명이 있었다. 10년이 지난 현재는 미국도 달라졌다. 예산이 줄고 학생 수가 늘었고, 사교육도 늘었다. 그래도 내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일주일에 두번 방과후 숙제지도 시간을 연다. 교사가 있고 사범대 학생들이 봉사를 나온다. 고등학생들도 동급생 공부를 도운 시간을 의무사회봉사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속 키팅 선생님을 기대하지는 말자. 대신 그의 10분의 1 정도 열정을 끌어낼 여유를 갖도록 1교실 2교사 이상의 체제를 갖추면 어떨까. 임용 적체 인원도 수천이다. 대한민국은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초일류 불평등국가가 됐다. 1+1이다. 기울어진 풍요가 가져올 날들은 백야일까, 극야일까? 교실에 돈줄을 풀어 새판을 짜길 제안한다.

## 다문화가정엔 다국어 가정통신문..."이젠 이해하기 쉬워요"



[앵커]

학부모가 된 해외이주 여성들은 한글로 된 가정통신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다국어로 된 가정통신문을 받아 볼 수 있어 이 같은 불편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4년 전 몽골에서 제주로 시집온 박은주 씨.

시간이 흘러 지금은 한국말은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한글은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입학한 후 학교에서 보내는 한글로 된 가정통신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박은주 / 학부모 (몽골 출신):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아)아빠한테 해달라고 하든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참가를 못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 제주다문화교육센터의 도움으로 몽골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박은주 / 학부모 (몽골 출신): 놓친 부분이 많아서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번역이 다 돼 있으니 내가 (가정통신문 내용을)다 알 수 있고 참가할 수 있고...]

학교에서 번역을 요청한 가정통신문은 몽골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60개 언어로 자동 번역이 가능하고,

더 정확한 번역을 위해 베트남어와 중국어 등 6개 언어는 수동 번역을 요청할 경우 번역가들이 직접 번역해 줍니다.

번역된 가정통신문은 QR코드나 웹 주소, 번역 문서를 통해 가정에서 쉽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순 / 무릉초등학교장: 학교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이제 안내가 되고 또 학부모님들의 이해도도 높아져서 그것이 결국은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기회를 높이고...]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됐지만 호응이 뜨겁자 지난해 8월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초중고에는 2천6백여 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주 전체 학생의 3%가량입니다.

이들에게 전달되는 다국어 가정통신문은 해외이주 학부모의 어려움을 크게 줄여주면서 학교와 소통하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이정훈kctv(yerin7186@ytn.co.kr)



## “그런데 ‘이 기상’이 뭐예요?”

몇 해 전 결혼이민 여성들의 귀화 면접 시험 대비를 위해 모의 면접을 진행했다. 내게 면접관 역할을 맡긴 담당 직원이 리얼리티를 살리려면 건조하게 응대하고 질문의 난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경일에 대해 질문했고 6개 광역시가 어디냐고 물었고,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보라고 했다. 가혹하다 싶었지만 많이 출제되는 문제라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음기 거두고 물었다. 누군가 애국가를 4절까지 꼬박 불렀다. 국조는 들어본 바 없고 발음은 독특했으나 가사는 완벽했다. 면접관 체면 구기고 눈물이 날 뻔했다. 다음 사람에게도 애국가를 불러보라 했다. 이번에는 1절 전반부도 못 넘어가는 게 아닌가. ‘성의가 없지 않소’ 말할 뻔했다. 면접관 역에 너무 몰입했나 보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되뇌며 되근하는데 내 입에서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며칠 전 귀화 준비하는 회원들을 돕고 있는 직원과 얘기를 나눴다. 온·오프라인 자료를 두루 찾아서 공부시키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 질문하고 있다고 했다.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기본적인 내용도 있으나 한국 역사와 사회를 알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공부 시간이 자꾸 늘어나고 있단다. 이번에도 역시 애국가 이야기가 나왔다. 영희씨가 숨죽여 애국가 4절을 다 불러서 박수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이 기상’이 뭐예요?” 하더라. 둘이



서 한참을 웃었다. 막상 설명하기도 쉽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압기했는지 신기하다고 했다.

이제 유관순 열사와 이순신 장군은 외웠으나 오만원은 신사임당, 만원은 세종대왕, 오천원은 이율곡, 천원은 이황이란 이름은 여전히 오락가락한다. 이미 돈 벌고 살리고 아이 키우면서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통과 의례치고는 괜하고 고약하다. 증발해버릴 정보들을 붙잡아 두느라 애쓰고 있다.

귀화 시험은 국적을 부여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국가와 권리를 보장받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개인의 의지가 만나는 자리이다. 그러니 쌍방이 서로 만나는 형

식과 내용이면 좋겠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국민에게는 어려서부터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축적된 것이지만 이제 겨우 한국어를 습득한 사람에겐 시험이라는 형식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결혼이민 비자로 생활하는 여성들이 귀화를 선택하는 상황과 시기는 각기 다르다. 엄마 이름에서 다문화가정이 묻어나지 않게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김하나’, ‘이지은’, ‘한정은’으로 개명까지 하면서 귀화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있다. 비자 연장이라는 번거로운 절차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도전하지 못하는 여성도 있고, 국적을 변경하고 싶지 않아서 귀화가 아닌 영주권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다각자의 상황과 시기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으니 존중받아야 한다.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부지런하고 살뜰하게 이주민의 무게까지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국적을 얻고 국민이 되어도 그들 앞에 붙은 ‘결혼이민자’, ‘귀화자’가 여간해선 분리되지 않는 것도 공통점이다.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말이다. 고마움과 환대와 응원을 전하는 통과 의례는 안 되는 걸까?

정중운

서울 구로구가족센터장



씨줄날줄

국제결혼

올 초 톱스타 송중기의 국제결혼이 화제가 됐다. 그는 지난 1월 말 팬카페를 통해 영국 여성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과 임신 소식을 직접 알렸다. 배우 송혜교와 이혼한 지 4년 만의 재혼인 데다 톱배우로선 흔치 않은 국제 커플이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결혼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대중의 관심 대상인 연예인의 경우 호기심이 더 크기 마련이다. 지난해 그룹 클론의 구준엽과 대만 여배우 서희원의 결혼도 한국과 대만 양국에서 이슈가 됐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으로 전년 대비 0.4%(8000건) 줄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다. 이런 와중에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즉 국제결혼은 1만 6700건으로 27.2%(3600건)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입국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체 혼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국제결혼 증가는 이제 보편적인 추세로 봐야 한다. 지난해 총 혼인 건수 중 국제결혼의 비중은 8.7%로 신혼부부 100쌍 중 9쌍이



국제 커플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3년 통계를 보면 2017년 7.9%, 2018년 8.8%, 2019년 9.9%로 매년 급증했다.

국제결혼이 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송중기의 결혼 발표를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다문화가족 혜택에 관한 정보가 회자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다. 다문화가족 구성

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교육, 의료, 보육, 주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국공립 어

린이집 입소 우선권, 외국인학교 입학, 국민주택 특별 공급, 공기업 채용 가산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과거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로 폄하됐던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개선됐다. 다문화가족의 일상을 보여 주는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도 이런 변화에 기여했다.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그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내국인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니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이순녀 논설위원